소년단

1956.5

5월의 하늘 높이

윤 복 진

넓고 푸른 우리 하늘
5월의 하늘 높이

비둘기떼 쌍 쌍
춤을 추며 날아 도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평화의 우리 새야

자랑 많은 우리 공장
다시 우뚝 솟아 났지

새로 선 사택 마을
공화국기 높이 날지

× ×

높고 푸른 우리 하늘
5월의 하늘 높이

비둘기떼 쌍 쌍
춤을 추며 날아 도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평화의 우리 새야

바다처럼 넓은 들에
밀 보리 물결 치지

협동의 우리 마을
그림 보다 아름답지

× ×

해'빛 밝은 우리 하늘
5월의 하늘 높이

비둘기떼 쌍 쌍
춤을 추며 날아 도네

비둘기야 비둘기야
평화의 우리 새야

웃음 가득 우리 동무
밝은 창을 모두 열고

소리 높이 손저으며
너를 너를 노래하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주석단

로동당이 가르키는 승리의 길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에 결쳐 평양시에서 열렸던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끝났다.

이 대회는 조선 로동당이 더욱 튼튼해졌으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실시해 온 모든 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회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 일성 원수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를 한결 같이 지지하였다.

제2차 전당 대회로부터 제3차 대회에 이르는 8년 동안은 조선 로동당이 쌓아 올린 업적들로 빛나고 있다.

로동당의 령도 밑에 민주 개혁의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져가며 빛나는 민주 건설을 진행하였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1955년 공업 총생산액이 전쟁 전인 1949년에 비하여 56%나 더 높아졌다. 1955년 말에 벌써 236개소의 국영 기업소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되여 돌아가고 있으며 71개소의 국영 기업소들이 새로 섰다. 특히 전후에 우리 나라에

는 전에 없던 새로운 공업 부문이 생겼으며 지금 직류 발전기를 비롯하여 선반기, 광산 기계, 각종 농기계들과 각종 고급 천들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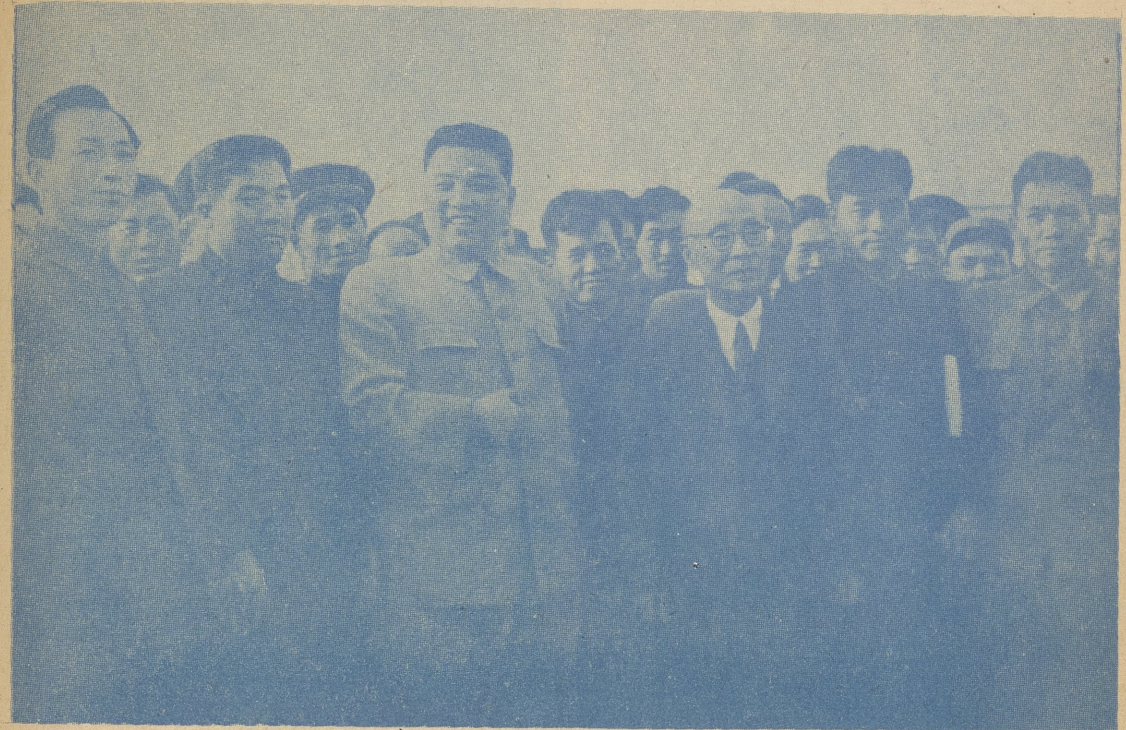
당과 정부에서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쓴 결과 전후 2년 간에만도 37,700여정보의 토지가 늘었으며 평남 관개를 비롯한 수 많은 하천 제방 공사들이 실시되였다. 뿐만아니라 1956년 2월 말 현재로 14561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인민들의 살림은 날로 꽃피여 가고 있다.

당과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전후에 1,285개소의 학교를 지어 주었으며 지금 194만 2천명 이상의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있다. 또한 쏘련, 중국을 비롯한 형제 나라들에서는 4800명의 우리 나라 류학생들이 대학들과 전문 학교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국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조선 로동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민주 기지로 만든 것이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회에서는 이와 같은 빛나는 업적을 총결하면서 오는 해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의 광활한 전망을 내 놓았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장에서

당 대회 대표들과 함께 계시는 김 일성 동지와 김 두봉 동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면서 농업과 경공업도 함께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과업이 나서고 있다.

특히 중공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지금 돌아 가고 있는 공장들을 더욱 크게 늘쿠며 또 새 공장들을 세워 각종 공작 기계(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비롯하여 전기 기계, 농기계, 건설 기계, 엔징, 선박들을 더욱 많이 만들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에 직접 필요한 자전거, 재봉침도 만들게 될 것이다.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기 공업과 석탄 공업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 오게 된다. 발전소들의 복구를 끝내며 독로강 발전소의 완공과 강계 발전소의 일부를 완공하며 석탄 공업에서는 1956년보다 1.7배로 석탄을 더 캐내며 무연탄을 까스로 만들어 공업과 도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과업도 나서고 있다.

화학 공업에서는 1961년에 가서 년 40만톤의 화학 비료, 100~150만 톤의 쎄멘트를 농촌과 건설장에 보내게 될것이다.

경공업에서는 첫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가서 각종 천의 생산을 1956년에 비하여 1.5~2배로 높이며 의복들을 많이 만

들어 인민들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림업, 수산업, 교통, 운수, 체신, 기본 건설 부문들도 다른 인민 경제 부문의 발전과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에 발맞추어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 경리에서도 큰 발전이 있게 된다. 알곡을 더 많이 내며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을 더 한층 발전시켜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농촌에는 모두 협동 조합이 조직되게 될 것이다.

또한 당 대회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데 대하여 큰 배려를 돌리고 있다. 그러하여 첫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소용되는 물품들을 더 넉넉히 생산하여 공업 상품과 식료품에 대한 배급제를 없앨 수 있게 준비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내세운 과업의 하나는 우리 나라 기술 일'군들의 양성이다. 기술 대학, 기술 전문 학교들과 기술 보습반들에서 생산 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고중 졸업생들을 위한 고등 기술 전문 학교들을 새로 세움으로써 기술 일'군들을 더 많이 양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며 장차 초중 의무 교육제(7년제)를 실시할 준비도 갖추게 될 것이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는 쏘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파란, 독일, 체코슬로바키야, 월남, 루마니야, 웽그리야, 몽고, 알바니아, 불가리야, 일본 등 형제당 대표들도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하였다.

이렇듯 모든 인민 경제 부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더욱 빛나는 승리의 길이 우리들 앞에 넓게 펼쳐지고 있다.

대회에서는 당 중앙 검사위원회 사업 총결보고를 지지하였으며 로동당이 발전 강화된데 알맞는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하였다.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는 중요하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리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사진 좌는 대회에서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 쏘련 공산당 대표단 단장 레오니드 일리츠 브레쥬네브 동지. 사진 우는 대회에서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 단장 섭 영진 동지.

이 선언은 예로부터 하나인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여 1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조국의 통일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 때문이며 이것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조국 남반부 인민들이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압박과 착취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하루 빨리 가져 오게 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호소하고 있다.

조선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조선 사람끼리 민주주의적 총 선거로써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조선에서의 정전을 완전한 평화에로 돌리기 위하여 정전 협정을 지키며 외국 군대들이 물

3차 대회에 대표로 참가한 혁명 투사 정 동철 동지는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원으로 보천보 전투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평양 제15중학교 소년단원들에게 들려 주고 있다

러가도록 해야 한다.

남조선 국회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그 국회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남북 조선의 국회, 정부 혹은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로써 상설 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 인민들이 가깝게 지내도록 도와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문제를 의논할 것을 제의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전체 애국적 인민들이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우리 나라 문제에 관계 있는 나라들이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대표들과 여러 아세아 국가 들이 참가하는 국제 회의를 열 것을 희망한다.

대회의 이 선언은 전체 조선 인민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회에서는 당 중앙 기관들이 선거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들은 지금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들을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3개년 계획을 2년 8개월에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있다.

3차 당대회 대표들을 환영하는 평양시 내 소년단원들.

나는 로동당원이다

—강락수 로력 영웅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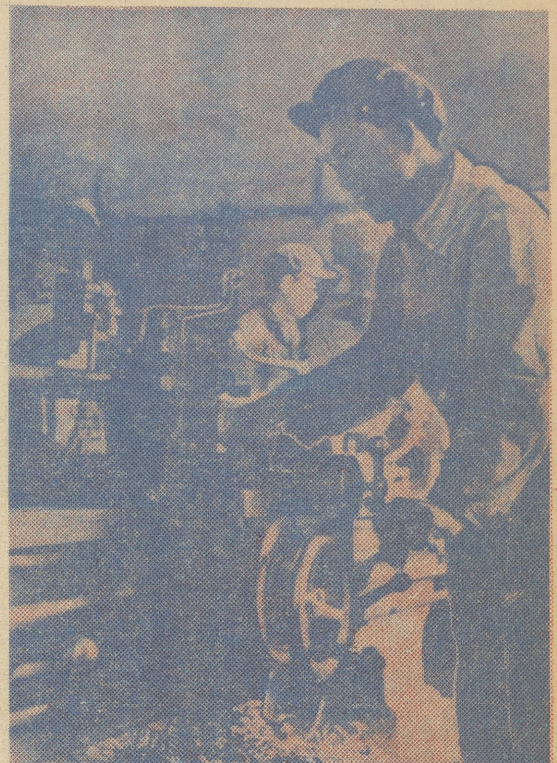
—학교를 얼마나 다녔는가구요? —겨우 소학교 밖에 못다녔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입학 기념 사진입니다. 누구나 그 사진을 보면 유난히 허룸한 흰 조선 옷을 입은 아이 하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나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학교에 입학했는가고 묻겠지요.

입학식날 학교에 갔을 때에 내 이름을 안불렀습니다. 나는 그 까닭을 몰랐지만 아버지는 벌써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 지으며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눈이 팔려 발'길이 돌아 서지 않는 나를 손목을 이끌어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외할아버지가 가까스로 기부금을 마련해 주어 겨우 소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소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나 웃학교 가는 것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품팔이로 겨우 끼니를 이어 가는 우리 집 살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술을 배워서 집 살림을 보태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나의 이뜻은 8·15 해방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946년이 잡히면서 아버지와 나는 인민의 공장으로 된 신의주 기계 제작소(후에 락원 기계 공장으로 됨)에 들어 갔습니다.

이리하여 나의 새 생활은 열다섯살에 시작되였습니다…

변변히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소년단원들의 모임에 갔을 때에도 직공 학교에서도 받았습니다.

나는 기계 제작소에 들어가자 선반 견습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습공 여섯달만에 나는 기능공으로서 선반기 한대를 떳떳이 맡아 일하게 되였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강 락수

동무는 참 재간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나는 나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때 나는 선반기를 맡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쉴 때에도 퇴근한 후에도 짬만 있으면 혼자 남아서 선반기를 돌리며 기능공들이 아직 빠르다고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라사 깎는 공식도 맞추어 보군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것만을 기다리지 않고 애써 배웠기 때문에 보통 1-2년 걸려야 된다는 기능공을 여섯달에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이야기 할 것은 로동당과 민청이 나에게 그런 힘을 키워 주었으며 당의 참된 아들로 길러준 그것입니다.

나는 열여섯살에 민청원으로 되였습니다. 민청 생활에서 지금도 즐겁게 회상되는 것은 1947년도 첫 인민 경제 계획이 내려 왔을 때 일입니다. 왜놈들이 마사 놓고 갔기 때문에 선반기와 작업 도구들이 모자랐습니다. 민청 초급 단체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우리 민청원들이 애국 로동으로 선반기 세대와 모자라는 측정 기구를 수리 제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나의 동무들과 함께 석달에 할 것을 20일에 끝내여 우리 공장의 기계 생산에 큰 도움을 주어 칭찬 받았습니다.

나는 해마다 책임량을 훨씬 넘쳐 하군 했습니다.

1951년 2월 20일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나는 이날 그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로동당원이 된 기쁨—나의 몸에는 날개라도 돋힌듯 선반기 앞에 설 때마다 새 힘이 솟았습니다.

또 어떤 기쁜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창의 고안에 성공했을때라고 서슴 없이 대답합니다.

1951년에 나는 새 선반기로 일했습니다. 이 선반기로 한시간에 뽐프에 쓸 라사못 24개를 깎아야 하겠는데 18개밖에 못 깎았습니다. 한번도 책임량을 못해 본 일이 없는 나에게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였습니다.

더우기 로동당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였습니다.

《동무는 후방에서 선반기를 돌리는게 원쑤를 무찌르는 일인 줄 아오!》하고 나의 전선 탄원을 들어주지 않으며 생산을 많이 내라던 초급당 위원장의 말씀도 떠올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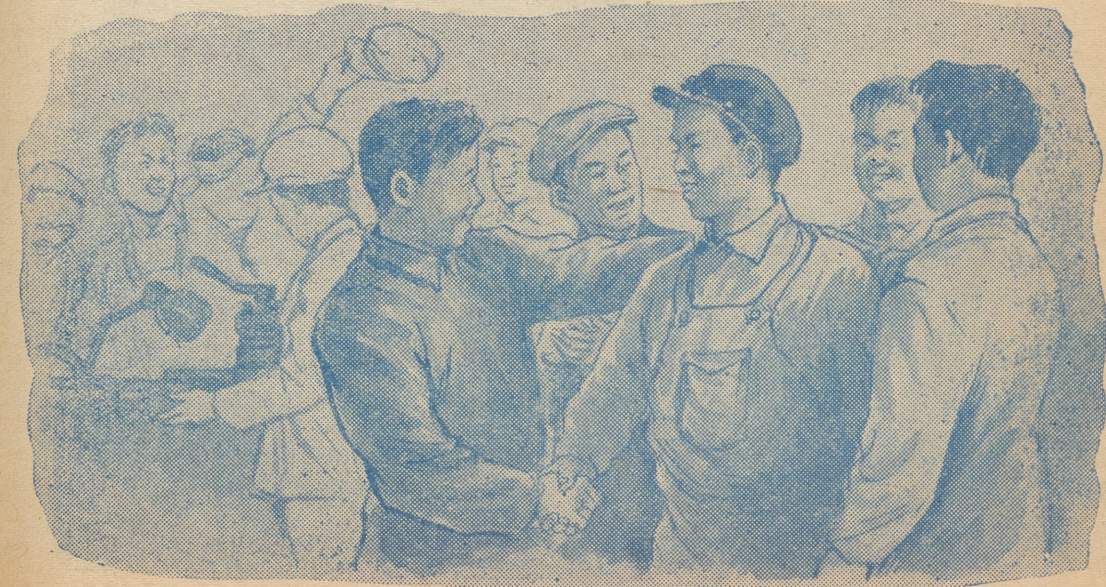
고장은 새 선반기의 피대가 자주 벗겨져서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였습니다.

도서실에서 기술 서적도 빌려다 보며 여러가지 기계의 피대도 연구했습니다. 또 몇번씩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피대 저피대를 써보았으며 피대 잇는 법도 여러가지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애쓰던 나의 머리에는 통피대 (브이벨트)를 씌우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나는 이 의견을 직장장에게 몇번 제의했으나 《그래, 오래 일한 내가 동무보다 못하단 말이요?》하고 씨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동당원이다. 조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는 내가 마음 냈던 것을 못해서야 되겠는가, 초급당 위원장과 기사장도 해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꼭 해내고야 말리라》고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연구해 오던 나는 공장에서 돌아 오다가 파철데미에서 통피대를 돌리는데 쓸만한 쇠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첫 닭이 울기를 기다렸다가 공장에 나갔습니다. 선반기를 돌려 통피대를 씌울 부속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흐르고 시간은 빨리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다 깎았을 때는 벌써 동이 훤히 터왔습니다.

공장에 일찍 나온 세포 위원장인 직공장은 《됐어, 됐어!》하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 주었

고 또 통피대를 구해다가 그날 아침으로 빨리 시운전하게 해 주였습니다. 노력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시간에 18개 밖에 못깎던 라사못을 96개까지 깎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던 초급당 위원장과 세포 위원장은 물론 내 의견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일부 간부들도 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로동당원이 된 해의 일입니다. 그후 나는 여러가지 난관을 이겨냈으며 창의 고안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할 차례가 된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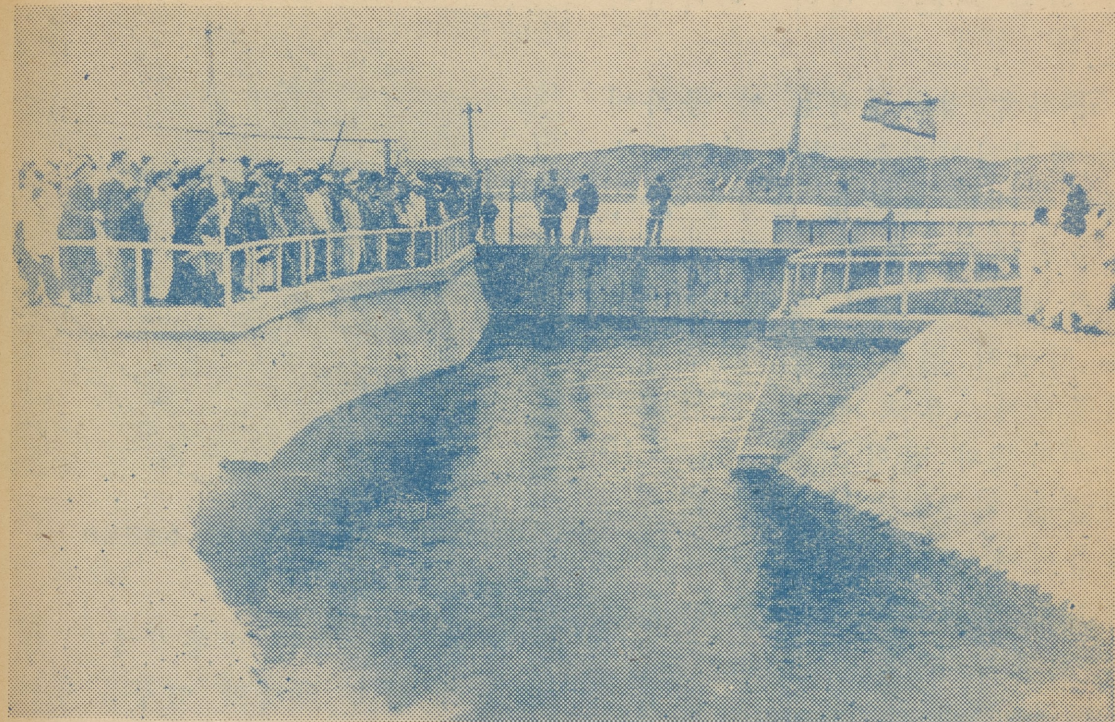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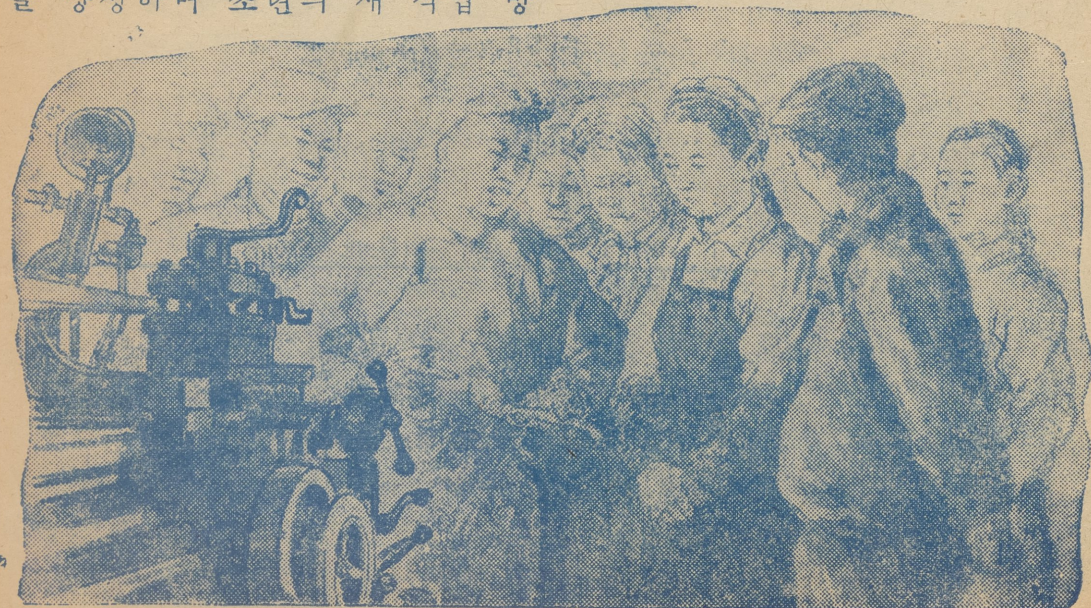
나는 지금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우려 생산에 바치고 있는 한편 당의 위임을 받아 기능공들을 양성하며 쏘련의 새 작업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편 나는 일하고 나서 잠잘 시간 여덟 시간을 내 놓고는 학습도 하고 축구나 롱구 시합에도 선수로 나가며 때로는 연극써클에서 연극할 시간도 가집니다. 이것은 지금 완전히 습관되여 있습니다.

기수가 되기 위한 기술 리론 학습도 거의 끝나 갑니다.

선반기와 함께 10년을 넘겨 일하고 있는 나는 여덟가지의 창의 고안으로 국가에 리익 준 것이 436만원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공로로 네개의 공로메달을 받았으며 금년 2월에는 영예로운 로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가고 하여 이것으로 나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동무들의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기쁜 것이 없겠습니다…

강물은 들로 흘러든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나라의 지도를 펼치세요. 이제 우리 나라를 가로 세로 흐르는 수많은 강들이 어디로 흘러 드는가를 찾아봅시다.

지금 동무들에게 《대동강물이 어디로 흘러 드는지를 아세요?》하고 물으면 누구나 《서해 바다로 흘러 내리지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대답 한 마디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왜냐하면 평남 관개 제2계단 공사가 끝나게 된 오늘 대동강물은 2천리나 되는 기나긴 수로를 거쳐 넓고 넓은 열두삼천리벌로 흘러들며 2만 9천정보나 되는 논밭을 적시게 되였으니까요.

이말에 아마 동무들은 놀랄거야요. 그렇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랍니다.

옛날부터 바다에로만 흘러 내리던 강물을 사람의 힘으로 끌어 올려 넓고 넓은 열두삼천리벌에 논을 풀게 했으니 어찌 놀래지 않겠어요.

지난해 4월 24일 청천강 물을 끌어 들이는 제1 계단 공사를 끝마치고 계속 제2 계단 공사를 진행한 이 평남 관개 공사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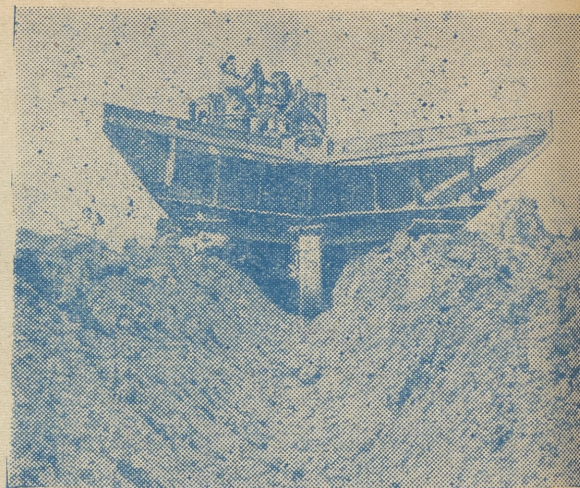
탈 이만 저만한 일이 아니였어요.

공화국 정부에서는 이 공사에 수 십억원이라는 많은 돈과 수 백만이라는 로력을 들였답니다.

그리하여 물이 가득 고였을 때의 면적이 8,613평방km나 되는 굉장히 넓은 연풍 저수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여러개의 저수지들과 물이 흘러 내릴 10 리굴을 비롯한 11개의 커다란 굴들이며 3천 3백개소나 되는 복잡한 콩크리트 공사들을 훌륭히 해냈답니다.

이 공사에 든 콩크리트는 2톤 드러 트럭에 싣는다 해도 75,000 대에 실어야 할 많은 량이며 여기서 파낸 흙은 200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에 120여대의 트럭에 실을 수 있게 파낸다 해도 42년남아 걸려야할만큼 많은 량이랍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공사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커다란 공사도 우리 인민들의 열성과 로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 졌지요.

이것은 실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우리 인민들의 또 하나의 자랑이며

우리 나라에서 만든 수로굴착기가 수로를판다

승리입니다.

이와같이 오늘 대동강물은 인민들의 힘에 의하여 연풍 저수지에 모이고 기나긴 수로를 따라 안주와 신안주 지구를 지나 끝없이 넓은 열두삼천리 벌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큰 수로와 거기에서 갈라진 작은 수로들을 합친다면 수로의 길이는 실로 2천 2백리나 되지요. 이것은 평양에서 원산까지의 사이를 두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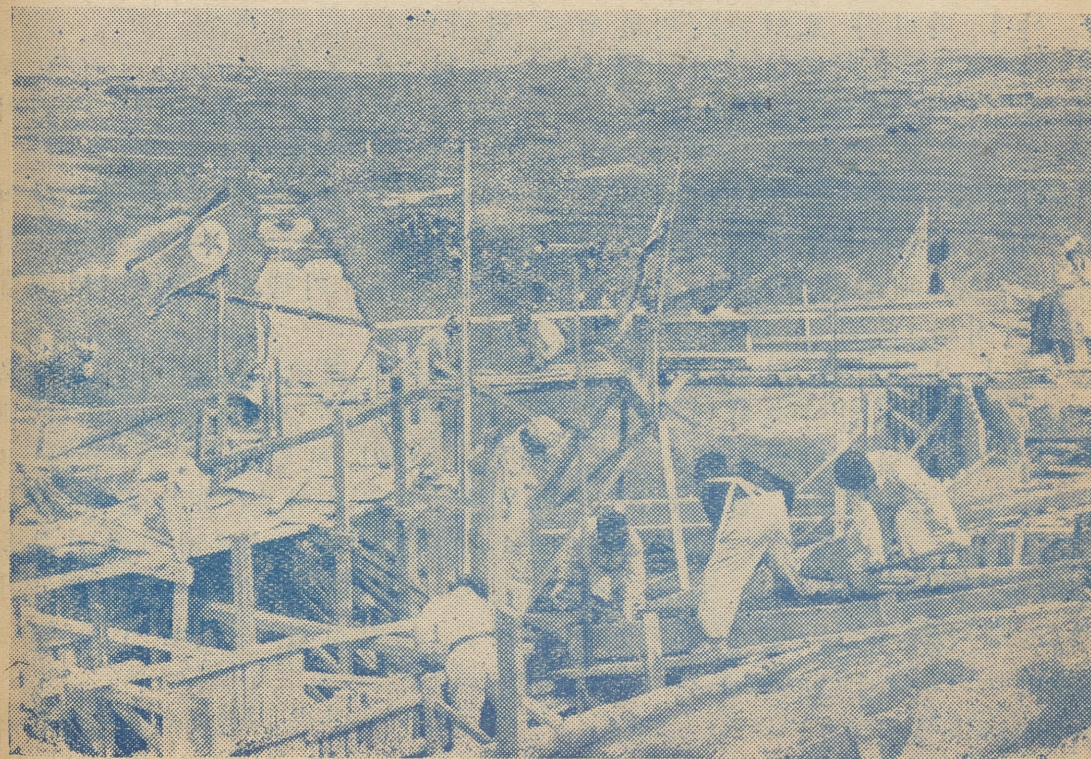
해방후 땅의 주인으로 되였고 오늘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또 하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더욱더 행복한 새살림을 꾸려나가게 된 이 고장 농민들은 지금 한없는 기쁨과 감격에 벅차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에만 하여도 제1 계단 공사에서 새로 물을 대인 1만여 정보의 논에서는 2만여톤의 곡식을 더 거두었고 이제 제 2계단 공사가 끝나면 열두 삼천리벌에서는 해마다 5만 3천톤 이상의 쌀을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관개 공사들은 이것만이 아니랍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크고 작은 3백여개의 관개 하천 공사들이 진행되여 지금까지 바다로만 흘러 내리던 우리 나라의 강물은 들로 흘러 밭을 논으로 풀게 하며 장마철마다 강물이 넘어나서 농작물을 밀어가던 일이 없게 되였답니다.

이처럼 조국의 지도 우에는 우리 나라의 많은 강들과 호수, 산과 들이 날마다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변해가는 자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956. 4. 30)

(신 진 균)

— 함남 퇴조 수산 협동 조합을 찾아서 —

박 정 렬

함흥역을 떠난 기차는 요란한 기적을 남기며 북으로 줄달음쳤습니다.

《야! 바다가 보인다》. 마즌편에 앉았던 한 소년단원이 이렇게 웨쳤습니다.

《넌 바다를 처음 보는게지》.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아니요, 바다에서 해수욕도 하며 놀았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함흥에 온 그는 마침 봄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네 집에 간다는 것이였습니다.

《너의 할아버진 뭘 하시는데?》.

바로 내가 찾아가는 수산 협동 조합 마을로 가는 소년단원을 만난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진 수산 협동 조합에서 고기를 잡아요》. 올해에 58세된 할아버지는 어로 반장이며 모범 로동자라는 자랑까지 합니다.

《넌 참 훌륭한 할아버지를 모셨구나》. 나는 창을 열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바람이 시원하게 안겨오는 창밖을 보는 소년단원의 얼굴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 우로는 갈매기가 훨훨 날고 돛단 배들이 멀리 보입니다. 한장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바다의 주인들을 찾아 빨리가고 싶은 생각에 기차도 느린것만 같았습니다.

× ×

동해 바다를 끼고 이곳 어촌은 큰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침 내가 수산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를 찾아 갔을 때는 고기 잡이 배들은 바다에 나가고 남아 있는 조합원 아저씨들은 분주히 그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고기 잡이'배를 바다에 내보내고도 이렇게 그물을 뜰 수 있게 되였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어로 도구들을 미리미리 장만하는거지요》.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수산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은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였습니다.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분기의 고기 잡이 계획을 145%로 넘쳐한 이곳 조합원들은 당대회를 맞이하며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바다에 고기 잡이 나갔던 배들도 들어오게 되였네, 그전에 이 일을 빨리 끝내야지》하며 아저씨들은 재게 그물을 떠 나갑니다.

이때 밖에서 한 로동자 아저씨가 달려오며

《고기'배들이 들어 와요!》하고 알렸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관리 위원장 아저씨와 함께 잔교로 나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놀은 잔잔한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철썩 철썩 바다'물은 밀려 왔다간 밀려나가면서 백사장을 씻어 냅니다.

멀리 바다로 나갔던 고기'배들이 풍어기를 펄럭이며 눈앞에 다가 오는데 어느새 나왔는지 조합원들이 손을 흔들며 기뻐합니다. 그들 속에는 마을 소년단원들도 섞이여 있었습니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도 몹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푸들푸들 뛰여 오르는 청어를 가득히 실은 배가 잔교에와 닿자 《할아버지!》. 여러 사람들 틈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응, 영철이냐!》. 바다'바람

에 고슴은 검붉은 얼굴에 웃음을 담으신 한 로인이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는 소년단원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내가 만나고 싶어 하던 김 시운 할아버지와 기차에서 만나 이야기한 그 소년 단원이였습니다.

김 시운 할아버지와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바다일이 몹시 힘들지 않으세요》.

김 시운 로인은 《허허…》웃고 나서 《오늘처럼 서로 돕고 힘을 합해 일하는 때에 아직 10년은 문제 없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날로 새로워져가는 조합 마을을 바라 보시는 것이였습니다.

지난날 미제 날강도 놈들의 함포와 기총탄으로 하여 불타고 파괴되였던 마을에는 새 집들이 줄지어 일어서고 거리의 스피카에서는 명랑한 노래 소리가 흘러 옵니다.

《생각하면 참 꿈 같기만 하외다》.

40여년을 바다에서 일해온 김 시운 로인이 말하는 것처럼 협동 조합은 이곳 어민들에게 새 생활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왜놈 때에는 배와 그물이 없어 배'주인에게 품팔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언제나 배'군이라고 천대받던 그들이 오늘은 바다의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처음에 협동 조합에서는 목선 8척과 변변치 못한 어구로서 고기를 잡았으나 지금은 목선이 그때의 배나 늘었고 발동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협동조합에 안든 어민은 이곳엔 한 사람도 없답니다》하고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자그마한 수산 협동 조합으로부터 이곳 전체 어민들이 참가한 큰 협동 조합으로 발전해온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전쟁 때 받은 피해를 빨리 씻고 고기를 더많이 잡으라고 나라에서는 이곳 수산 협동 조합에도 수백만원의 자금을 주었답니다.

이 돈으로 조합에서는 잔교에 고기를 운반하는 기계도 놓으며 고기'잡이배도 더 마련하고 구락부와 주택들도 새로 짓게 되였습니다.

잔교에서는 고기'배의 고기를 퍼 나르는 일이 시작되였습니다.

물 좋은 생선을 분주히 운반하는 가공반 로동자들은 《이 달에도 150%는 문제 없겠수다》하는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말에 《그럼요》하며 더욱 일에 신이나 합니다.

이윽고 발동선은 《퐁퐁》 동그란 연기를 뿜으며 바다로 나갈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넓직한 앞가슴에 국기 훈장 3급을 단 기선반 어로공 김 봉주 아저씨는 발동선에 오르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넓은 바다로 떠날 때면 꼬리치는 물 고기를 더 많이 잡아낼 생각에 그저 기쁘고 자랑스럽기만 하답니다》.

당과 정부로부터 수산 협동 조합들에 돌려지는 배려에 보답하려는 조합원 아저씨들의 기세는 드높았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의 바다! 영양 많은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 원료로 쓸 고기를 많이 잡아 낼 고기 잡이'군들을 부르는듯 바다 물결은 부두에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1956. 4. 10)

일본에 있는 조선인 소중학교
아동들의 작품집

《종달새》에서

열마전에 우리 편집부는 일본 효고껜 니시와기 조선인 소중학교 소년단의 이름으로 보내온 편지와 아동 작품집 《종달새》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을 그리워하는 조선인 아동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침공을 물리친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일본에 있는 전체 조선인들과 아동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전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빛나는 투쟁에서 자기들은 더욱 큰 용기를 얻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온 아동 작품집 《종달새》는 그곳 조선인 소중 학교 아동들이 쓴 작품들을 실린 것으로 여기에는 조국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 시들과 공화국의 어린이답게 살며 배워 나가는 씩씩한 모습들이 씌여진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동 작품집 《종달새》에 실려 있는 작품 두편을 아래에 실립니다.

사진은 교내 운동 대회에서 《조국의 지도 만들기》경쟁을 하고있는 동경 조선인 초등학교 5학년 동무들.

일하는 녀공

중3학년 박 곡 지

새벽부터 이곳 그 나쁜 공기 속에서
하루 종일 선채 일하는
우리 누님들

천 짜는 기계 소리 귀가 울리고
허리가 아프도록 일하여도
삼식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밤에도 평안히 잠을 못자는
나어린 녀공들

그들은 얼마나
부모, 형제, 고향을 그리고
일에 시달리며 지내고 있는가
자본주의 세상이 나쁜 탓으로

즐거운 내나라

제 5학년 허 송 자

즐거운 내 나라야
웃음 꽃이 피였지
공장에선 무럭무럭
연기가 피여 오르고

어린 동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머니들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린 애기 탁아소에서 잘 크는
모두다 행복스러운 내 나라

나도나도 어서 커서
내 나라에 돌아가
공부하고 힘차게 일하리라
언제나 즐겁게 생활하리라

아— 그리운 내 나라여!
즐거운 내 나라여!
참다운 일'군 되여 돌아 가리라

빛나는 우리의 길

—소년단 창립 열돐을 맞으면서—

최 윤 호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우리의 도시들과 마을들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 실행을 위한 건설과 생산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인민 경제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들어선 우리 북반부 인민들의 살림은 날로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복이 꽃피는 보람찬 해에 공화국 소년들은 소년단 창립 열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지난 10년간 소년단이 걸어온 길은 실로 보람 있고 빛나는 길이였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소년들이 마음껏 즐겨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항상 어버이같이 따뜻한 배려를 돌렸습니다.

미제 원쑤들이 우리 나라에 전쟁의 불'길을 질러 놓기 전에 벌써 우리들에게는 훌륭한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 궁전, 아동 극장, 도서관, 경기장, 공원 등 어디에서나 마음껏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온갖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수만명의 소년들이 금강산, 송도원, 화진포, 모향산 등 아름답고 경치 좋은 명승지들과 흰 갈매기 날아도는 바다'가에서 휴양과 야영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들을 위하여 《소년단》《소년 신문》《아동 문학》 그 외에도 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 동시집 등 수 많은 책들을 출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은 학습에서 모범이 되고 규률을 잘 지키며 조국을 끝 없이 사랑하며 원쑤를 미워할 줄 아는 훌륭한 어린 애국자로 자라났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가장 어려운 때에도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사랑 속에 소년들은 학습을 계속하였으며 부모와 형님들을 도와 전선을 원호하며 후방을 튼튼히 지키는 사업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미제 원쑤놈들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빨찌산의 비밀을 지킨 서 강렵 동무의 용감한 행동과 안주 탄광 소년 근위대가 세운 빛나는 공훈은 우리 나라 력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승리를 보장하게 한 박 원진 영웅이며 적 비행기를 열두대나 사냥한 김 기우 2중 영웅들은 모두 다 소년단에서 교양 받고 자란 민청원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조국 해방 전쟁이 빛나는 승리로 끝나자마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미래인 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3층 4층의 넓고 밝은 새 학교를 지어 주었으며 아동 공원, 도서관, 구락부, 야영소들도 새로 꾸며 주어 수 많은 소년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배우며 몸을 다지게 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내각 결정 36호로써 우리들이 교과서와 학용품들을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라는 소년들의 앞에는 행복의 길만이 활짝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날뛰고 있는 우리 나라 남반부의 소년들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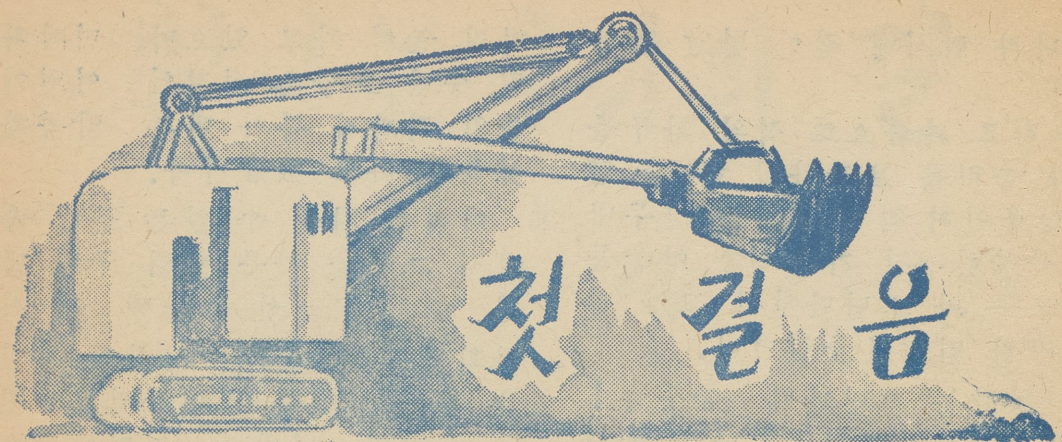
지금 남반부 거리에는 깡통을 차고 헤매는 어린이들이 날을 따라 늘어 가고 있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심지어 어린이들의 피까지 뽑아 내는 악독한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불행 속에서 그들을 하루 빨리 구해 내기 위하여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고 지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 실행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오늘 우리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부지런히 공부하며 소년단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울 수록 웃음소리와 노래소리 높아지는 우리 조국은 동무들이 어서 커서 훌륭한 건설자로 용감한 착암공으로, 또는 뜨락또르 운전수로, 작가, 예술가로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다 조국이 바라는 훌륭한 일'군들이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합시다.

첫 걸음

…함흥 제1 중학교 (인민반)대에서…

정거장구내는 방금 독일에서 보내온 기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김 달용 동무는 기중기와 굴착기를 열심히 살펴 보면서

《저것들을 내 힘으로 움직여 봤으면…》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어떻게 흙을 파 올릴가?》. 달용 동무는 큰 기계가 듬뿍듬뿍 흙을 파내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굴착기 모형을 꼭 만들어 운전해 보리라고 마음 다졌습니다.

어느날 반 모임에서 그는 이번 공작품 전람회에 우리 반에서는 굴착기와 기중기 모형을 만들어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무들 가운데서는 무슨 재간으로 그런걸 만든담》 하며 반대하는 동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용 동무가 굴착기 모형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생각해 온 이야기를 하자 동무들도 《참 그럴듯 해》 하고 기뻐하며 굴착기 (엑쓰까와똘)부터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마분지로 모형을 만들어 보았으나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여서 철탑이 움직이며 흙을 파 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학습이 끝난 후 달용 동무네 반에서는 굴착기가 분주히 모래를 파 내고 있는 성천강으로 달려 갔습니다.

운전수 아저씨는 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자신을 가지게 된 반 동무들은 다시 모형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난 양철을 가져 올테야》.

방 한원 동무가 이렇게 말하자 저마다 쇠줄, 목재. 대패, 톱등을 가져 오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권양기를 만들 활차만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에 모아놓은 폐품 가운데에 없을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학교 운동장에 쌓여 있는 폐품 무데기를 들쳐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활차 한개가 있었습니다.

일은 곧 시작되였습니다. 대패질을 잘 하는 황 상길 동무는 운전대를 만들고 달용 동무는 굴착기의 《바가지〉를 양철로 만들고 철탑은 나무를 깎아서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가지에 퍼 담은 흙을 어떻게 하면 제절로 쏟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하던 끝에 《바가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여 보려고 《바가지》 밑쪽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대고 권양기로 잡아 끌게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굴착기의 《바가지》는 재빨리 열어졌다 닫아졌다 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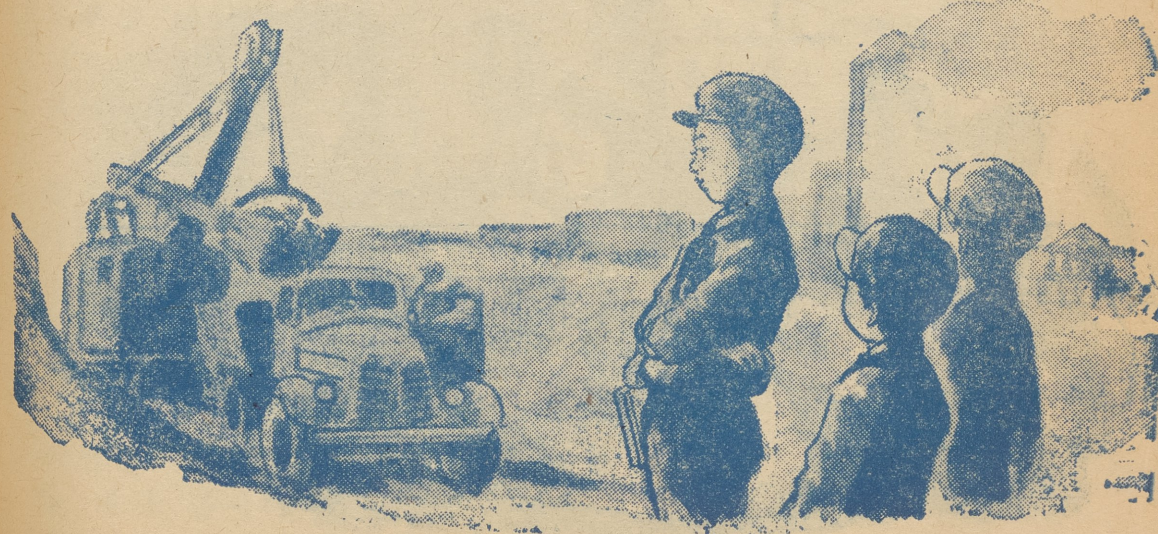
《틀렸다 틀려, 래일부터 기중기나 만들자》 황 상길 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그만 락심하는 것이였습니다.

《넌 마음이 약하구나 좀 더 힘쓰면 될거야》. 달용 동무는 동무들에게 꼭 만들어 내자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가?) 달용 동무는 며칠 동안 이런 생각으로 숙제도 잊었습니다.

(언제나 숙제 검열에서 칭찬을 받던 달용이가 웬 일일가?) 분단 동무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수 시간이 끝난후 선생님은 달용이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때에야 그는 반 동무들과 굴착기 모형을 만들다 실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말할게지, 혼자서 안타까워만 하면 되나 분단 동무들과 진작 의논했으면 의례히 도와 주지 않을라구, 그러면 학

습도 뒤떨어 지지 않구…》.

선생님은 달용이네 반 동무들의 솜씨를 칭찬하시며 치차와 합판, 스프링등을 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새 힘을 얻은 이들은 분단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굴착기 모형은 훌륭히 만들어졌습니다.

이튿날 자연'과 시간이 끝난 후 분단 동무들 앞에는 굴착기 모형을 들고 달용 동무가 나타났습니다.

두개의 치차를 사용한 권양기는 재빨리 돌면서 철탑을 땅 우에 내리웠습니다.

흙을 파 담은 《바가지》는 빙그르르 방향을 돌리더니 활짝 벌어지며 흙을 쏟았습니다. 《야 멋 있구나》. 동무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굴착기 《바가지》 밑쪽에 스프링을 대여 《바가지》는 마음 대로 열려졌다 닫히면서 쉴 새 없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후 분단에서는 달용이네 반 동무들의 훌륭한 모범을 뒤따라 기중기, 물방아, 바람방아, 증기타빈 모형과 전령, 제재기 등을 만들어 전람회에 내 놓았습니다.

전람회를 보시고 교장 선생님은 제2 분단 동무들의 재간있는 솜씨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의 솜씨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날의 훌륭한 기술 일'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실지에 기계를 만들어 내고 돌릴 수 있도록 더욱 꾸준히 배워 나가야겠습니다》.

(박 설 희)

강 효 순

《땡 땡 땡 땡》

서울 령천 국민 학교 직원실 앞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운동장에서 와짝 떠들어 대던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교실로 들어 갑니다. 더부룩한 머리에 먼지가 잠북 오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찢어진 적삼으로 살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신도 못신고 맨발로 뛰여 놀다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헤일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 아이만은 멋진 양복을 쭉 뽑아 입고 우쭐거립니다.

4학년 아이들은 벌써 교실에 들어간지 오랬는데 아직 선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군데군데 신문지로 붙인 유리문을 빠금이 열고 연성 복도를 내다 봅니다. 뒤'줄에 앉은 몇몇 큰 아이들은 뻬거덕거리는 책상 우에 올라 앉아 시시덕치고 있습니다. 몇 아이는 책상 사이로 뛰여 다니며 떠들석 떠들어대는 때입니다.

《쉬 온다 온다!》.

《복도를 내다보던 아이들이 유리문을 살짝 닫으며 일제히 속삭였습니다.

조금 후에 〈쿵쿵〉 발 걸음 소리를 내며 한 40가량 먹어 보이는 키다리 선생이 교실문을 〈드르릉〉 열고 들어 왔습니다. 안경은 코허리에다 걸고 목이 성큼한데 손에는 뚜껑에 여우처럼 생긴 녀자의 그림이 있는 잡지를 들고 기우뚱거리며 교탁 앞으로 나서더니 아이들을 휭 둘러 봅니다. 아이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

선생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도화 시간입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걸 마음대로들 그려라》.

선생은 의자를 끌어다가 척 걸터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그리는 아이, 사람을 그리는 아이, 그리고 짐승을 그리는 아이, 전쟁하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 벼라별것을 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크레온이 없어서 연필로 대강 그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은 의자에 앉은대로 안경우로 때때로 아이들을 넘겨다 보며 잡지만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났다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린 그림들을 들고 교탁 앞으로 가다가 종수 앞에서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종수가 그린 비둘기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야! 참 멋지게 그렸구나》.

《꼭 살아 있는것 같구나》.

《종수는 어쩌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가》.

아이들은 모두 종수를 부러워하는 것이였습니다.

종수는 비둘기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척 애쓰다가 나중에야 생각대로 되였습니다. 그는 비둘기 아래다 몇자의 글을 써서 냈습니다.

이것을 본 선생은 깜짝 놀라며

《이 놈의 새끼, 너 이게 뭘 그린거냐 응? 그리고 이 밑에 쓴 것은 무슨 수작이냐》.

선생은 안경을 벗어 교탁 우에다 뎅강 내던지더니 뿔잡이라도 하려는 황소처럼 종수를 쏘아 봅니다.

《싸움을 모르는 비둘기 만세? 너 누구 한테 이런 수작 배웠냐 응?》.

선생은 잡지를 둘둘 말아 종수의 뺨을 사정 없이 련거퍼 후려 갈겼습니다. 종수는 머리가 아찔하여지며 코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던 아이들은 우뚝 서서 쑤군거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손 수건을 꺼내 들고 종수앞으로 가자 다른 아이들도 수건과 종이들을 들고 주르르 달려 갔습니다.

《저리들 비껴》.

선생은 두 눈을 부릅뜨고 갈린 목소리로 꽥소리 쳤습니다.

《직원실로 가자》.

선생은 종수의 어깨를 콱 밀쳤습니다. 아이들은 수건과 종이를 종수의 손에 넝큼 들려 주었습니다. 종수는 선생의 뒤를 쫓아가며 흐르는 피를 수건으로 씻고 종이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턱과 볼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사뿐사뿐 걸어오던 녀선생 한분이 종수를 바라보더니 소스라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만 얼굴만 찌프립니다.

선생과 종수는 교장 앞으로 갔습니다. 교장은 후원회 회장과 마주 앉아서 무슨 명단을 들여다 보며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 마침 잘 들어오셨소, 지금 교장 선생의 생신 준비 때문에 토의하는 중입니다. 어서 이리 앉으시지요》.

회장의 말에 고개를 쳐든 교장은 최선생을 바라보다가 종수가 눈에 띄였습니다.

《어 이놈의 새끼들 또 싸웠구나?》.

교장은 종수를 아래 우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놈의 새끼가 그린 이 그림을 좀 보아 주시우》.

최 선생은 종수가 그린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이말에 다른 선생들도 몇명 주르르 달려 왔습니다.

그림을 들여다 본 교장은 의자에서 후닥닥 일어서더니 종수를 한 동안 뚫어지게 쏘아 봅니다.

《너 이런 그림을 어디서 봤니 응?》하고 쇠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고 그린게 아니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싸움할줄 모르는 비둘기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렸을 뿐이예요. 선생님도 아무거나 그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놈의 새끼 그래 내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그림을 그리라던》.

최 선생은 주먹으로 넙다 때

리려다가 다른 선생들을 흘깃 바라보더니 주먹을 스르르 풀고 말았습니다.

후원 회장은 뒷짐을 척 지고 서서 종수를 쏘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만났던 녀선생이 그림을 드려다 보다가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너머 지나친 생각이예요. 그 애가 저의 집에 있는 비둘기를 그렸다는걸 가지고…》.

이말에 교장과 최 선생은 와락 성을 냈습니다.

《박 선생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그래 이런 그림과 글을 보고도 모르오?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소. 〈싸움을 모르는 비둘기 만세!〉 라는 말은 공산주의 자들이 늘 말하는 〈평화 만세!〉 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리고 그것은 〈리 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을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요. 그래 박 선생은 〈북진 통일〉을 반대하는거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오》.

벼락같은 교장의 말이였습니다.

《너이 아비는 무엇하는 놈이냐?》.

《정거장에서 삯 짐을 집니다》.

《음! 그만했으면 알만하다》.

교장은 최 선생을 바라보며

《잘 잡아냈소. 이런 놈의 새

끼 당장에 퇴학시키시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말을 들은 종수는 앞이 캄캄해지며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비둘기 그린게 뭐이 나빠요. 나는 싸움하지 않는 비둘기를 그렸는데 왜 퇴학준단 말이야요》.

종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발을 동동 구르며 따졌습니다.

《나가라 나가》.

교장은 종수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직원실에 있던 선생들은 종수가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것을 바라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교장을 노려봅니다.

종수는 그길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무들은 물끄럼히 종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수는 책보를 싸가지고 누더기 모자를 쓰고 책상 사이로 걸었습니다. 동무들은 종수 앞으로 와르르 밀려 들었습니다.

《얘 퇴학 맞았냐?》.

손수건을 몰래 들려주던 아이의 말이였습니다. 종수는 북바쳐 오르는 설음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 뿐이였습니다. 그의 랑볼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습니다. 동무들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였습니다.

이때에 「쿵쿵쿵」하는 최 선생의 발 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종수가 어깨를 들먹거리며 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을 맞은편 교실에서 박 선생이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놈들 어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지붕 바루 아래에 높이 붙은 한장의 그림을 보며 와짝 떠들어 댔습니다. 이바람에 선생들도 모두 뛰여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훨훨 날아도는 비둘기 떼를 향하여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는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조국의 평화적 통일 만세!》라는 글'발이 곱게 씌여 있었습니다.

교장과 최 선생은 어쩔 줄을 몰라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사다리》.

교장은 부들부들 떨며 울'상이 되여 아이들에게 고함쳤습니다.

한편 옆에서 이 모양을 바라보고 있던 박 선생은 남몰래 빙그레 웃었습니다.

청소 하는 날

어느날 방과 후 영희네 분단에서는 학급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나르는 아이, 방바닥을 쓰는 아이, 물걸레질 하는 아이 모두들 분주합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맡은 만길이와 희규만은 운동장에서 뽈차는 아이들에게 정신을 팔고 손만 거들거들 놀려 갑니다.

교실안 청소는 이제 거이다 끝나게 되였는데 유리창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 빨리 닦고 뽈 차잤구나!》. 아이들은 소리쳤습니다.

만길이와 희규는 그제야 바빠나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닦고난 유리창은 얼룩투성이고 창문 앞 꽃밭에는 유리창을 닦고 난 종이가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글세 이러구도 그들은 청소를 끝냈다구 뽈찰려 갔대요.

요행을 바라든 봉수

책상에 맞우 앉아 책을 들여다 보던 봉수의 얼굴에는 빙그레 웃음이 어렸습니다.

전날 멋들어지게 치른 국어 구답 시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신통하게도 내가 공부한 문제만 뽑았거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기잡이 가고 싶은 마음에 끌린 봉수는

《고기잡이 갔다 와서 어려운 문제들이나 풀어보면 되겠지. 산수 시험쯤이야…》하며 낚시'대와 다레를 들고 정남이를 찾아갔습니다.

《애, 고기 잡으러 안갈래?》.

《가구 싶지만 공부는 언제 하구…》.

《그 많은 문제를 언제 다 하니, 모두 배운 것인데 어려운 문제나 슬쩍 보면 되지 뭐야》

봉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뽐내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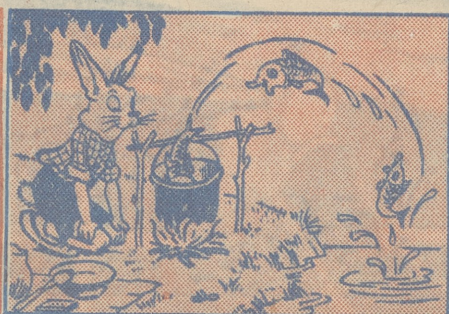
《그래도 난 싫어, 최우등생인 태규랑 창호랑두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홍 난 운이 좋아, 공부한 문제만 시험에 나거던》.

봉수는 정남이네 집을 슬그머니 나오면서 이렇게 흥얼거렸습니다.

× ×

그러나 소년단원 동무들! 요행만 바라든 봉수는 산수 시험에 2점을 맞았습니다. 놀랠 동무는 없겠지요. (정 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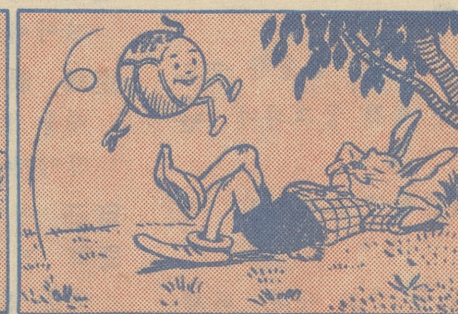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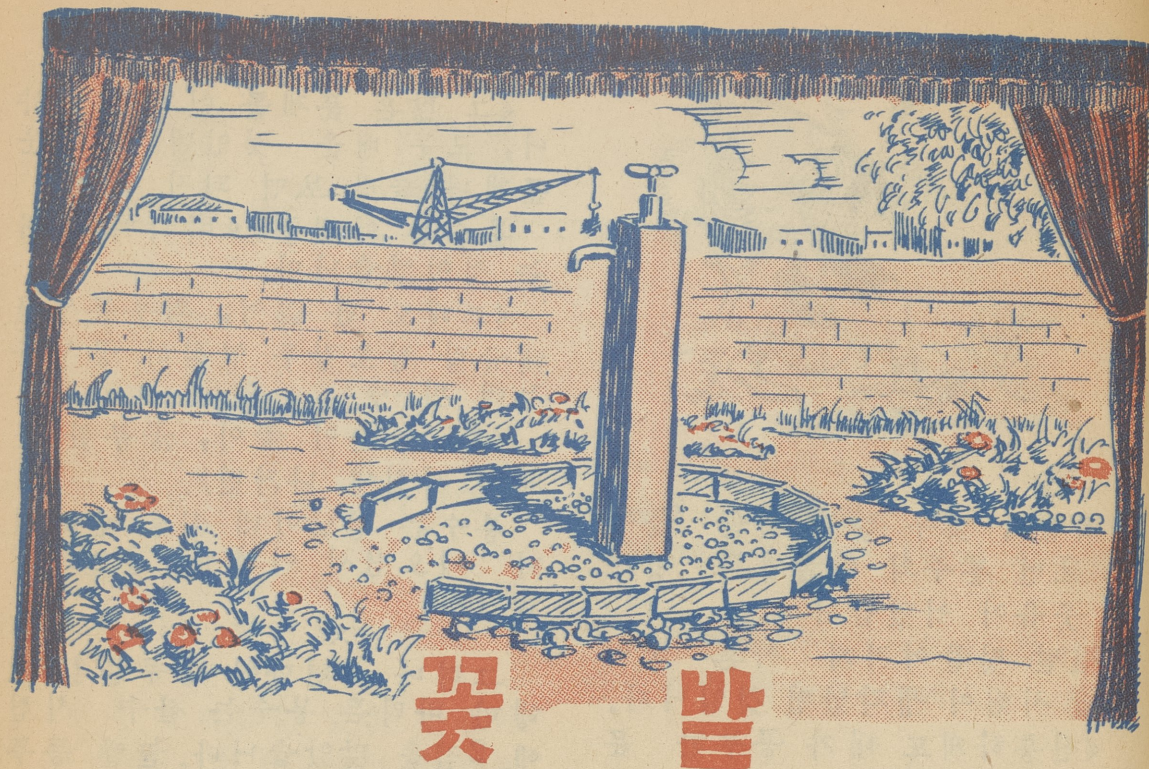
만일 이렇게 될수 있다면

고기가 저절로 잡힌다면

버섯과 딸기가 저절로 모여 든다면

곤충들이 저절로 표본집에 날아든다면

뒤지않고 뽈을 찰수 있다면

쏘련 삐오네르들의 신문 《삐오네르스까야 쁘라우다》에서 전재

꽃 밭

한 태 천

<때> 1956년 5월 어느 일요일 오후

«나오는 사람들»

학수 (인민 학교 4분단 위원장 4학년)
준택 (인민 학교 4분단 위원)
성필 (〃 〃 소년단원)
윤도 (〃 〃 〃)
창호 (〃 〃 〃)
명근 (〃 5분단 〃)

<무대> 학교 뒤뜰악

무대 중앙 뒤로 파—란 칠을한 수도대가 벽돌을 각을 세워 둥그라니 만든 원 한가운데 서 있다.

담 넘어 멀리 건설장의 크레잉이 상반신만 보인다.

막이 열리면 명근은 수도 아래 바케트를 놓고 물을 받으면서 역시 물을 길려 온 준택이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준택 그래 너희건 모두 잘 자라니?

명근 그럼 채송화, 백일홍, 함박꽃, 코스모스, 다리야랑 벌써 패 컸다.

준택 자연 교과서에 있는 꽃은 하나도 없구나.

명근 왜 없어, 진달래두 떠다 심었는데…

준택 우린 말이야 할미꽃 오랑캐꽃두 다 심었거던…

명근 거짓말 말어, 그런게 어디서 났단 말이야,

준택 없는걸 갔다 심었으니 (엄지 손' 가락을 들어 보이며) 우리 분단이 이거란 말이야.

명근 정말이가?

준택 정말 아니구 그걸 얻느라구 얼마나 애를 썼다구.

명근 그래 어떻게 얻언?

준택 그저께 말이야 나하구 학수하구 1중학교엘 가서 얻어 왔다.

명근 1중학교엘 가서? 그건 정말 묘한 궁리를 했는데…

준택 거기 형님들에게 그런 이야길 하니까 «잘 왔다, 꼬마 과학자들을 도와 줘야지» 하고 모종을 주더라…

명근 그래 그 모종 다 심었니?

준택 응

명근 야! 그걸 좀 나눠 주질 않구, 좋아, 그러나 꽃밭 가꾸는덴 아마 우리 분단이 제일 일거야.

준택 두고 봐야 알지, 우린 마가렛도, 그라지오라스두 벌써 패 컸거던.

명근 너 지도원 선생님이 뭐랬는지 아니? 이번 꽃밭 가꾸는데 분단 동무들이 한사람두 빠지지 않구 나와 해야 한다구 했어.

준택 그건 나두 알아

명근 우리 분단은 말이야 오늘 전부 다 나왔다. 그리구 꽃밭도 멋지게 손질했구 모종두 참 많이 갖다 심었다. 이 만하면 누가 더 잘 했는지 알만 하지.

준택 우리 분단은 뭐 안 그런줄 아니? 거기다 우리 분단은 자연 교과서에 있는 꽃들을 심어 놨는데두…

명근 거짓말 말어, 너희 분단엔 두명이나 안나온 사람이 있지.

준택 (당황해서 말을 못한다)

명근 우린 벌써 다 알구 있거든.

준택 어떻든 나오면 될거 아니야

명근 인제 일 다 끝난담에 나오는거 누가 써 준대 뭐

준택 아무튼 우린 안나온 동무들을 찾아다가 같이 할걸.

명근 그건 맘대루 하렴아!
아! 물이 넘네, 또보자 (바케트를 들고 바른편으로 들어 간다. 준택 바케트를 수도아래 갔다 놓는다)

준택 에이 실컨 애는 쓰구두 그애들 때문에 진단 말이야! 찾으려 간 애두 안 오는걸보니 집에두 안있구 어딜 싸 다니는 모양이지.

△왼편에서 학수가 나온다.

학수 물은 빨리 안길어 오구 뭘 혼자서 중얼거리구 있니?

준택 결 나니까 그러지,

학수 결은 왜?

준택 윤도하구 성필이 때문에 지겠으니깐 말이야.

학수 인제 나올거야.

준택 나와두 지는건 정해 놨어—

학수 지도원 선생님의 말씀도 듣기 전에 넌 왜 질것부터 생각하구 그러니?

준택 5분단에선 벌써 윤도하구 성필이가 안나온걸 다 알고 있어… 알아?

학수 알면 뭘 하니?

준택 알면 뭘 하다니 이번 꽃밭 가꾸는데 제일루 보는게 출석 아니야.

학수 그건 그런데 어떻가니? 우리 열성자들이 일을 잘 못해서 그런건데

준택 나는 잘 못한거 없어.

학수 준택아 넌 정직하구 부지런하구, 그런건 다 좋은데 그 우뚝밸은 정말 나빠!

준택 글쎄 학수야, 내가 어제 얼마나 윤도한테 오늘 꼭 나오라구 말했는지 아니?

학수 암만 말했어두 너한 말이 윤도의 마음 깊이 들어 안갔기에 안나온거 아니가.

준택 윤도가 집에 가선 손끌하나 까닥하는줄 아니? 모르긴 해도 또 무슨 핑겔 댈거야.

학수 오늘 아침 네가 윤도네 집에 찾아 갈걸 잘못했어.

준택 꼭 나온다고 했기 난 믿었지 뭐

학수 나두 오늘 아침 집에 일만 없었으면 찾아 갈건데 인제부턴 좀더 자주 찾아 다니자.

준택 응 그런데 성필이가 안나온건 도모지 모를 일 아니가?

학수 찾으러 간 애가 오면 알겠지, 준택아 물 다 찾다 얘.

△준택 바케트를 들고 학수와 같이 왼편으로 들어 간다.

△성필이가 바른편에서 나온다. 성필이는 손에 들었던 고무공을 어느 호주머니에 감춰야 할지 망서리고 있다. 이때 윤도가 바른편에서 나오다가 이것을 본다.

윤도 너 공 샀구나!

성필 (잠간 머뭇거리다가) 우리 이모가 사다 줬어.

윤도 얼마래?

성필 십원 줬대나 봐.

윤도 야! 굉장히 싼데—

성필 응—

윤도 나두 빨리가서 하나 사야겠는데…

성필 (공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어떻가 잔, 애들 있는데 가야지.

윤도 인제 또 물길러 누가 올거야 그때 바케트를 들고 가자, 그저야 어떻게 가니?

성필 그건 그래.

△이때 아이들의 즐겁게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 온다. 윤도와 성필이는 우뚝하니 앉아 노래하는 쪽만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짧은 사이)

성필 얘, 온다 온다.

△윤도와 성필이는 일어 선다. 준택이가 바케트를 들고 왼편에서 나온다. 윤도가 얼른 바케트를 받아 수도 아래 놓고 물을 튼다.

준택 왜들 여기 있니?

윤도 지금 금방 왔어.

준택 너희를 얼마나 기다리고들 있는지 아니?

윤도 ………

성필 ………

준택 창호가 찾아 안갔든?

윤도 왔어.

성필 창혼 어딜 잠간 다녀 오겠데—

준택 빨리 동무들 있는데루 가 봐!

윤도 물 길어 가지고 같이 갈래.

준택 너희 둘 땜에 우린 5분단 한테 지게 됐어 아니?

윤도 미안해.

성필 ………

준택 근데 왜들 안 나왔니?

성필 난 말야 우리 어머니한테 돈 타가지고 츄립프를 사 올랴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딜 가셔서 그랬어!

준택 누가 츄립프 사오랬니?

성필 그래도 5분단에 없는걸 심어야 뽐낼 수 있지 않아 머—

△이때 성필이 운동화 끈을 다시 매려고 허리를 꾸부리는데 공이 땅에 떨어진다. 성필은 얼른 집어 넣는다.

준택 공 샀니?

성필 우리 이모가 사줬어.

준택 윤도 넌 왜 안나왔댔니?

윤도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으래서…

준택 아버지가?

윤도 ………

준택 네가 아버지한테 오늘 일을 자세히 말씀 안드린 모양이구나 뭐!

윤도 ………

준택 가만 내 분단 위원장을 다려 올게 (뺑 하니 왼편으로 나간다)

(짧은 사이)

△성필은 수도를 막는다.

△준택이와 학수가 왼편에서 나온다.

학수는 웃으면서 《나왔으니깐 됐어, 나왔으니깐 됐어》 하며 윤도 성필이와 악수한다.

학수 나 준택이한테서 다 이야기 들었는데 성필아 넌 쓸데 없이 뽐내보이길 좋아해. 그렇기에 소년단원의 엄숙한 맹세를 입으로만 외였지 맘으로 부르지 안었어—

성필 ………

학수 어때? 내 말이 틀렸니?

성필 아니.

학수 이제부턴 입으로 외우지만 말구 그대루 실행하자우.

성필 응

학수 윤도야 넌 공부는 잘 하는데 일하긴 정말 싫어 하거던.

준택 윤도야 우린 저기 집짓는 아저씨들을 배워야 해, 지금 너처럼 일하기 싫어해서야 저 아저씨들이 어떻게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2년 8개월에 완수하겠니?

학수 성필아, 넌 김 일성 수상님이 우리를 조선의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윤도 조선의 꽃봉우리라고 하셨지 뭐—

학수 옳아 우리가 정말 조선의 꽃봉우리가 되자면 꽃'잎을 파먹는 벌레를 잡아 없애듯 우리들의 나쁜 버릇을 없애야 하지 않겠어— 생각해 봐. 윤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벌레를 잡아 없애야 되구 성필이는 으쓱대는 벌레를 잡아 치워야 하겠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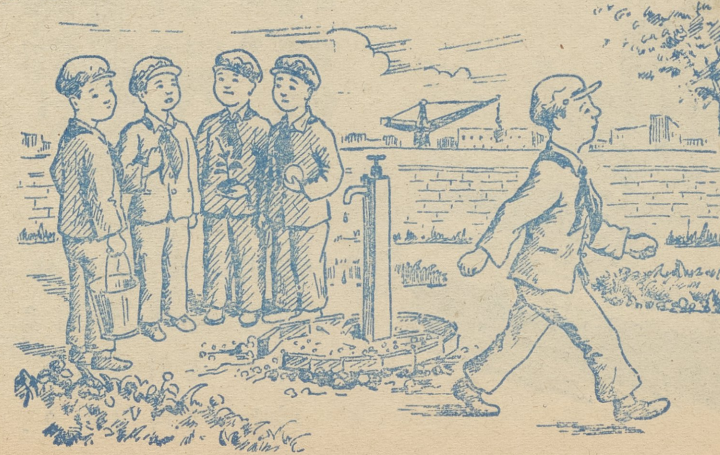
윤도 ………

성필 ………

학수 이번 6•6절 열돐 맞이를 앞두고 우리에게 있는 나쁜 버릇들을 모두 없애기에 힘쓰잔 말이야!

윤도 잘 알았어.

성필 난 꼭 고칠래.

△이때 창호가 장미 나무를 들고 바른편에서 나온다.

준택 야! 장미로구나 (받아 쥔다)

창호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드니 갔다 심으래.

준택 빨리 갔다 심자.

창호 학수야! 너 빨리 집에 가 봐.

학수 우리 어머니가 더 하시다든?

창호 응, 너희 동생이 울면서 오길래 물어 봤더니 그래

학수 준택아! 나 좀 갔다 와야겠어

준택 응, 빨리 가봐

△학수 바른편으로 뛰여 나간다.

창호 글쎄 어머니가 몹시 앓으시는데두 오늘 왔두구나.

준택 난 그런줄 조금도 몰랐어.

창호 학수는 정말 책임감이 센 아이야.

준택 분단 사업을 저렇게 생각하는 애는 정말 없을거야,

성필 준택아! 난 거짓말 했어. 어머니한테 츄립프 산다고 막 떼를 써서 받은 돈으로 공을 샀어, 아까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준택 됐어! (성필의 손을 잡고) 그런걸 알면 됐어 고치자 응!

윤도 준택아 나두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가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건 거짓말이야.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나온거야.

준택 그럼 그렇겠지 자 이제부터라도 고치문 돼!

윤도 응.

준택 자! 가자 꽃밭으로—

△성필, 윤도 바케트를 들고 준택, 창호와 함께 노래부르며 왼편으로 나간다.

△노래 소리 높아질 때 막이 내린다

벽돌

김 경 태

—그래 얼마나 안타까웠니!
  동무들과 떨어져 호올로…
진흙 속에 묻힌 벽돌 앞에서
순희는 걸음을 멈췄다.

—그 누가 이 모양을 만들었을가?
  벽돌 실은 자동차서 떨어졌을가?—
진흙 속에 반남아 묻힌
벽돌을 파내는 우리의 순희

한장 벽돌!
여기에 그 얼마나 귀한
로동자 아저씨들의
땀이 스미고 배였으랴!

이 한장 벽돌 속에
그 얼마나 깊은 정이 스몄으랴!
새 학교를 우리에게 세워 주시려는
살뜰한 정이, 고마운 마음들이!

순희는 씻어 준다.
벽돌에 묻은 진흙을—
말끔히 세수한 빨간 벽돌
밝은 해'살 반기여 속삭인다.

—고마워요! 순희 동무!
  진흙 속에 묻히운 동안
  나는 밟히였어요.
  나는 서러웠어요.

기중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벽돌공 아저씨들의 빠른 솜씨로
크나큰 새 학교 되여가는 동무들이
나는 부러웠어요.

내가 진흙 속에 그냥 묻혔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한장이라도 더 많은 우리를 만들려
애쓰신 로동자 아저씨들이—

이제 동무들과 나도 어깨 겯고
로동자 아저씨들 바라시던 그대로
크나큰 새 학교 이루게 되였으니…
고마워요 순희 동무!
  나는 기뻐요!

순희는 벽돌을 안고 간다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로동자 아저씨들의 빠른 솜씨로
크나큰 집 세워가는 건설장으로!

가축 사료들을 채취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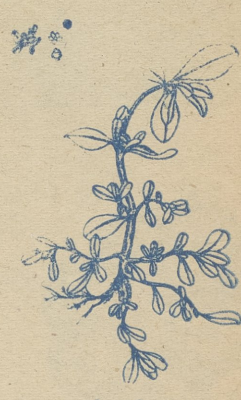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지금 우리나라 각지 농목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 그리고 마을들에서는 더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료들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무들은 지금까지 채집한 식물 표본들 가운데서 소나 돼지들이 즐겨 먹는 풀들을 찾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름철 토끼가 잘 먹는 크로바와 싸리움 늦은 가을까지 도랑둑이나 논 뚜렁에서 흔히 보는 쇠뜨기, 산에 나는 아들목, 말굴레, 칡넝쿨들과 새콩, 놀구자리 등 풀들은 모두 소나 양이 즐겨 먹는 풀들이고, 봄철에 들과 길'가에 많이 돋는 민들레, 쇠투리, 송구지들과 밭둑에 흔히 돋는 메삭, 돼지풀이라고 하는 능쟁이, 배짜개라고도 부르는 길장구들은 모두 돼지가 즐겨 먹는 풀들이랍니다.

이런 풀들은 아마 동무들이 만든 표본들 가운데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소나 양이 잘 먹는 풀로는 야생 찌모시, 속새, 밀풀, 발자근, 수박풀, 자구지 등이 있고 돼지가 잘 먹는 풀로는 달리깨비, 새비듬, 깨풀, (월견초) 댑싸리, 바랭이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싱싱한 풀들은 모두 재배식물 귀밀이나 보리에 못지 않는 영양가를 가진 훌륭한 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들은 즙이 많고 연하기 때문에 소화도 아주 잘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이 자연 사료들을 많이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리와 귀밀 감자나 옥수수와 같은 귀중한 곡물 사료들을 적게 사용하고도 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소년단원 동무들! 올해에는 동무들이 많은 표본들을 만드는 한편 산과 들에서 이 훌륭한 자연 사료들을 많이 채취하여 가축들의 사료를 마련하는 아저씨들의 일'손을 도와 드립시다.

개구리는 어떻게 번식할가요?

5월과 6월에 걸쳐 논'벌과 늪가에선 개구리의 번식이 한창입니다.

물이 고인 논벌과 늪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구리의 알들이 군데군데 엉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는 어떻게 번식할가요?

× ×

동면에서 깨여난 개구리들은 봄과 이른 여름에 걸쳐 번식한다.

번식기 (알 낳는 때)가 되면 암컷은 3천~만개 가량의 알을 물 속에 낳는데 이때 숫컷은 그우에 정충이 있는 정액을 뿌린다.

알은 물 속에서 정충과 합쳐서 수정되고 이 수정된 알에서는 배 (올챙이가 될 몸결)가 자라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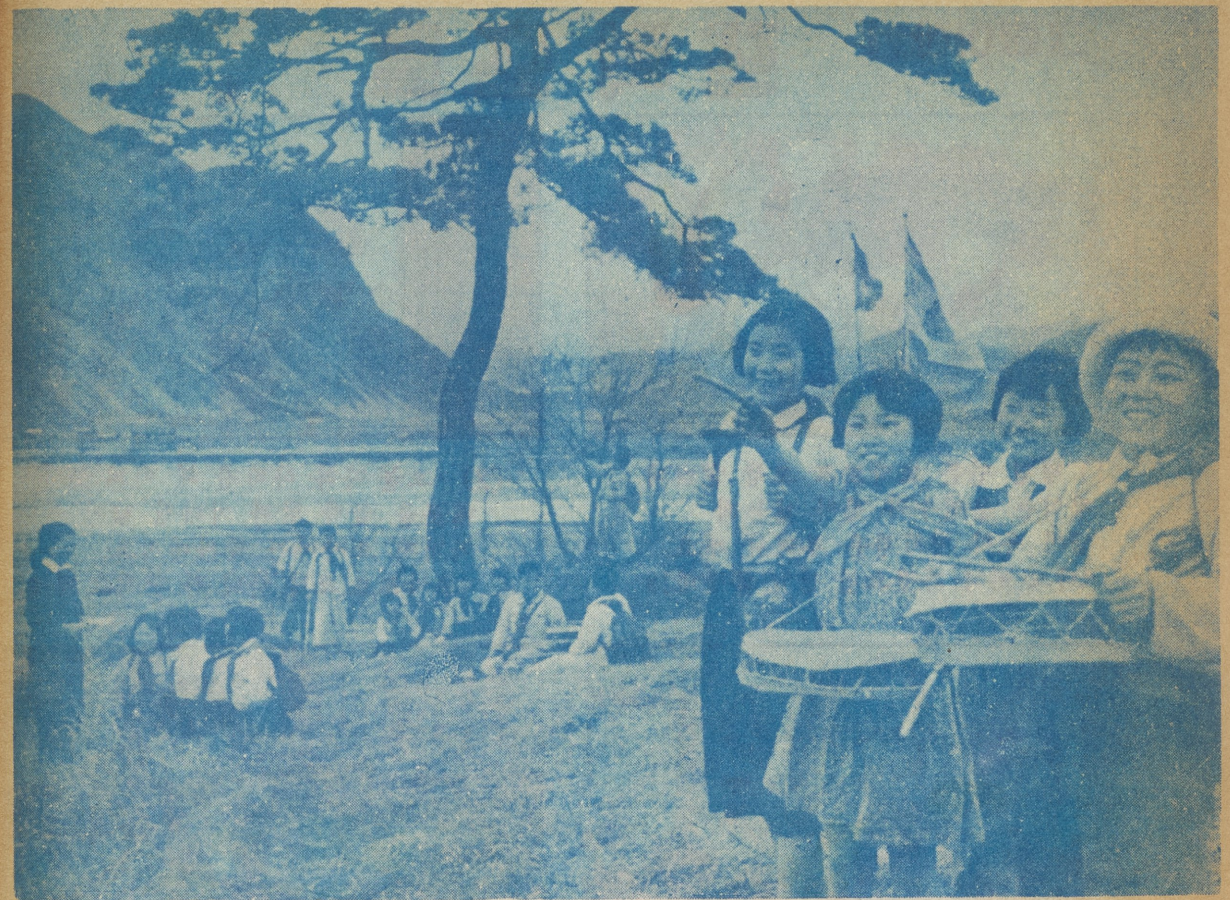
그후 약 10~14일이 지나면 알에서는 긴 꼬리가 달린 물고기 모양의 올챙이가 나온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기까지는 약 1개월 반이나 걸리며 그 사이에 발이 생기고 꼬리가 떨어져 나간다.

개구리가 자라서 알을 낳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약 3~4년이 걸리며 개구리는 약 16년간이나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개구리는 훌륭한 가축 사료로도 된다. 큰 개구리 한마리는 소나 돼지에게 주는 알곡 약 5g에 해당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다.

이제 번식기가 끝나면 이 개구리들을 잡아 농목장의 소나 돼지에게 많이 먹입시다.

1. 엉키여 있는 알　2. 막으로 덮인 배　3, 4. 겉 아가미가 생긴 올챙이
5. 내부 아가미가 생긴 올챙이　6, 7. 다리가 생긴 올챙이
8. 꼬리가 아직 남아있는 어린 개구리

봄을 맞은 소년단원들은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며 씩씩한 행군을 떠나고 있다.

사진은 행군 도중 대휴식을 하는 평남 덕천군 계남 제1 인민 학교 대 소년단원들.

앞표지………아동 공원에서 즐기는 소년단원들… 김 창규 촬영

1956년 5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5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5호 총(80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100　값 25 원　52,000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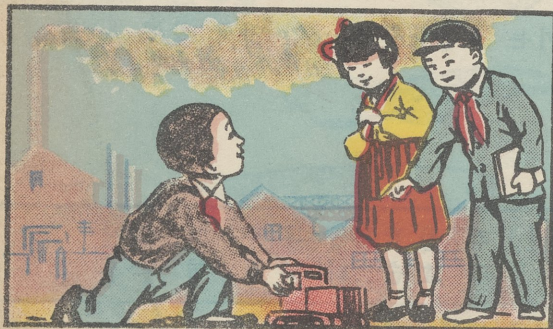
그림이야기 뜨락또르

림 영 환 그림

(1) 형님 만든 뜨락또르 모형 굴리며
철이는 운전수라 신이 났는데
남이 옥이 영이랑은 부러워 해요.
«나도 하나 가졌으면 정말 좋겠네!»

(2) -오늘 따라 아버진 왜 이리 늦나?
대문을 들락 날락 기다린 남이
아버지 오자마자 졸라대지요.
«뜨락또르 모형 하나 사 주세요 네!»

(3) 공장 언니 저 멀리 보이자 마자
빨간 당기 팔랑팔랑 달려간 옥이
반겨하는 언니더러 졸라대지요.
«언니언니 뜨락또르 만들어 주어!»

(4) 차근차근 산수 숙제 끝낸 영이는
고개 갸웃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스릉스릉 스르릉 톱질 하고요
똑닥똑닥 작은 못 박기도 해요.

(5) 아침 해'빛 밝은 길로 우릉우르릉
영이는 뜨락또르 몰고 가는데
달려 온 남이 옥이 물어 보지요.
«누가누가 사다 줬니? 만들어 줬니?»

(6) 영이는 벙실벙실 기쁜 얼골로
모형 들어 보이면서 이야기' 하죠
«내가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단다.
몇번다시 고쳐고쳐 만들었단다»